

현대 한국 엘리트들의 중국관의 변화 흐름

김광희* · 왕사가**

〈차례〉

- 머리말
- 한국 지식 엘리트들의 네 가지 중국관
- 한국 지식 엘리트들의 최근 대중국 인식
- 한국은 어찌해야 하는가?
- 맺음말

[국문초록]

현대 한국의 지식 엘리트 계층의 중국관은 한·중 양국의 국력의 격차, 안보보장과 경제 이익, 북한 요소, 중·미 간의 경쟁 구도, 북핵 위기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변화해 왔다. 한국의 지식 엘리트 계층에서는 중국위협론, 중국 붕괴론, 중국 기회론, 중국 기회와 도전 병존론 등이 제기되었고 한반도 국세의 변화에 따라 네 가지 중국관도 영향력 방면에서 상호 증감하는 변화를 보여 왔다. 주변 강대국에 대해 응당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한국의 엘리트 계층은 한·미동맹 중심론, 중·미병준론과 자강을 기초로 한 다자안보 체제론 등을 선후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한국의 지식 엘리트 중국관, 핵심 이익, 대국 경쟁 구도

* 김광희 연변대 인문대학 역사학부 부교수

** 왕사가 연변대 인문대학 세계사전업 석사과정

1. 머리말: 한·중 관계 회고

1992년 8월 한·중 양국이 수교하기 전 한국 정부는 중국을 적성 국가로 규정하였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심지어 정반대로 중국과의 경제무역 교류를 갈망하였다. 이 점은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피랍사건 발생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상협이 “봉황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¹⁾는 말이 잘 시사해준다. 1992년 수교 후 중 한 관계는 신속히 발전, 특히는 경제무역 교류가 수량 방면에서 폭증하였고 한국의 여론은 중국에 대해 보편적으로 우호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수교 당시 한·중 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와 1.4%로서²⁾ 한국은 중국을 아예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수교 이래 경제무역 교류는 한·중 관계를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고 한국인들의 관심도 중국의 경제에 집중되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한·중 관계 양국의 교역 총액과 인원 내왕 규모는 도합 50배나 증가하였고 연평균증가율은 20%에 이르렀다.³⁾ 한국의 대중국관도 상응하게 적성 국가로부터 제1 무역 상대국으로 변하였다. 2000년대 중반 전에 한·중 양국은 북핵 문제와 탈북자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양국 관계에 대해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중 수교는 동북아 국제 역학 구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불리한 국면에 처한 북한이 1993년에 국제비핵화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30년간 지속된 북핵 위기의 서막이 열리기도 하였다.⁴⁾

수교 초기 한국 엘리트 계층의 중국 인식은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 즉, 중국은 과거 역사적으로 위대한 국가였지만 현대에 이르러 낙후한 국가로 전락하였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수교 초기 한국인들의 중국관은 자신들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룩한 시장경제의 성과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중국을 가늠한 결과였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 현대사에서 획득한

1) 김충식, 『5공 남산의 부장들 2』, 동아일보사, 2022, 94쪽.

2) 조영남, 『중국의 꿈』, 민음사, 2013, 32~33쪽.

3) 박대중,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시대정신, 2012, 13쪽.

4) 성균중국연구소, 『한중수교 25년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11쪽.

성과들, 특히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고 믿고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척도로 중국의 현실을 재고 있었다.⁵⁾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경제 고속 성장은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높였고 중국의 빈곤과 낙후를 비웃기도 하며, 정치 체제 차이를 이유로 중국을 무시하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⁶⁾ 90년대의 한국 엘리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중국관을 보였는데 1990년대까지의 한국 보수 엘리트들의 주류 인식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불과 수년 후 극소수 학자들 특히 한국계 외국 거주자들은 한·중 양국의 국제 지위에 역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1997년에 이미 한국계 미국인 학자가 한·중 관계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던 시절은 지나갔고 한국이 중국의 그늘에서 살아야 날이 머지않았다고 진단하기도 하였다.⁷⁾

21세기에 이르러 중국과 한국의 산업 경쟁영역이 점차 근접하였고 양국의 마찰도 점차 증가, 양국 간의 국력도 점차 비대칭관계로 전환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대한국 무역의존도는 점차 하강하고 반대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상승하였다. 노동집약형 산업을 필두로 진출해 왔던 한국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점차 퇴출당하고 내수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화 가속과 일괄생산 시스템 구축의 진전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도 점차 낮아졌다. 2003년에 이르러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렇지만 동 시기의 동북공정은 한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국의 지식 엘리트들의 대중국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중국위협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의 중국위협론은 주요하게 두 가지 화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중국에 종속되었던 역사에 대한 회고가 주를 이루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위협론이 주요 내용이었다. 동북공정에 대해 한국에서는 “피해 상상”이 나타났는바 중국이 영토 확장 의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⁸⁾ 동북공정 파동에서 적지 않은 한국학자들

5) 유장근, 『현대중국의 중화제국 만들기』, 푸른역사, 2014, 190쪽.

6) 정덕구,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 중앙 books, 2011, 55쪽.

7) 조영남, 『용과 춤을 추자』, 민음사, 2012, 5쪽.

8) 왕효령, 『한국인의 중국관』,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4, 109쪽.

은 중국이 북한을 병탄하여 동북 제4성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⁹⁾ 한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강렬한 불만은 역사 의식본능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를 병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린 것이기도 했다.¹⁰⁾ 그러나 동북공정이 한국에서 쟁점이 되었을 당시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중국인은 고구려 역사 논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동북 제4성” 걱정에 대하여 한국에서조차 현재 국제관계의 특점에 대해 무지한 주장으로 치부하면서 중국이 실제로 북한에 진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¹¹⁾ 한국학자들은 중국이 혼란을 틈타 북한을 합병할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 실재를 이탈한 것으로써 일단 중국이 북한을 병탄할 의도를 드러내는 순간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전략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 발생할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보았다.¹²⁾

2007년경 일부 미국학자들은 중국의 붕괴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본토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국제사회는 2008년 금융위기를 미국 패권의 토대였던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 극적 사건으로 받아들였다.¹³⁾ 위기 후 미국의 여론은 중국이 국제 지위가 신속히 상승함과 동시에 오만해졌다고 보았다. 2010년에 중국의 국내 총생산량은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되었는데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1세기 20년대에나 가능하리라고 보던 예측이 무색하게 현실로 되었고, 이는 동아시아에서 한 세기 정도 지속되던 “일본 시대”가 저문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¹⁴⁾

이에 이르러서는 중국 붕괴론이 사라지고 중국 기회론이 중국 붕괴론을 대체했다.¹⁵⁾ 한·중 양국의 발전 차이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한국은 긴장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한·중 간에는 20년 정도의

9) 조영남, 『용과 춤을 추자』, 민음사, 2012, 354쪽.

10) 김희교, 『짱깨주의의 탄생』, 보리, 2022, 207쪽.

11) 광대중,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시대정신, 2012, 173쪽.

12) 정덕중,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 중앙 books, 2011, 162쪽.

13) 장성민,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퓨리탄출판사, 2016, 121쪽.

14) 요시미 슌야, 『헤이세이역사 강의』, 동방출판중심, 2021, 3쪽.

15)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나남, 2009, 7쪽.

발전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¹⁶⁾ 같은 해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한국이 중국을 원망하기 시작한 계기로 되었다. 동북공정이 역사 문화에 관한 민간차원의 분규였다면 천안함 사건은 국가안보 차원의 모순이었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지만, 중국 측의 초기 입장은 아주 신중하였고 북한이 궁지에 몰린 후에야 북한을 편들었다고 이해하는 엘리트도 있었다.¹⁷⁾ 동시에 천안함 사건은 한국이 자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 존재하는 중대한 결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자주외교, 독립 외교, 강대국 균형 외교에 대한 한국의 전략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한국의 미국에 경도된 외교가 북한의 도발, 미국의 개입과 한·중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한·미 관계가 강화될수록 중국과 북한 관계 또한 상응하게 친밀도를 더해갔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나 탈북자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 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한·중 관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안보 문제가 부각 되어 한·중 간에는 전략적 불신이 높아졌고, 이것은 다시 양국 관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¹⁸⁾ 그렇지만 양국 간의 불가분의 경제교류가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한·중 양국 관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하여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긴장해졌고 한국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로부터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몇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는 동북공정 사태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안미경중' 정책을 이어가는 선택이었다. 두 번째는 미·중의 협력하에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 흡수하는 선택이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 적

16) 전병서, 『중국의 대전환, 한국의 대기회』, 참돌, 2015, 11쪽.

17) 정덕구,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 중앙 books, 2011, 141쪽.

18) 조영남, 『중국의 꿈』, 민음사, 2013, 329쪽.

대 진영을 구축하여 신냉전체제로 나아가는 선택이었다.¹⁹⁾ 학자들은 박근혜 정부 시기의 한국의 대중국 외교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프레임에 구속되어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며, 둘째는 북한의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셋째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절대 중국 시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²⁰⁾

2015년 9월 박근혜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경축 활동에 참여하였다. 미국의 동맹국 수반으로는 전승절 행사 참석자가 박근혜가 유일하였는데 이때 한국의 엘리트들의 중국관은 ‘안미경중’ 혹은 ‘중미병중’의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듬해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고 한·중 양국 관계는 신속히 냉각되었다. 그리하여 한국학자들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의 책임을 모두 중국에 전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박근혜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 활동에 참여한 다음 달인 10월에 “한미동맹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핵심축”이라고 발언하였는데²¹⁾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목표물이 중국이란 점은 불 보듯 뻔하였으므로 중국으로서는 박근혜의 발언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한령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혐중국·반중국·친중국 등이 논조가 들끓었다. 친중국 논조는 중국은 미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면서 한반도의 평화, 민족통일과 경제발전이 모두 중국이 필요하기에 중국의 내부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반중국 입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무력으로 중국 북한과 대결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들은 미국의 배후 조종하에 중국혐오 정서를 자극하면서 한국에서 중국혐오 분위기가 한껏 떠들썩해지게 만들었다. 2017년 4월 26일 사드가 배치된 후 한국의 여론은 완전히 역전되었는데 사드 배치 반대가 55%를 점하던 데로부터 배치 찬성이 71%로 폭증하고 배치 반대는 18.1%로 격감하였다.²²⁾

19) 김희교, 『짱개주의의 탄생』, 보리, 2022, 72쪽.

20) 정덕구, 『극중지계1』, 김영사, 2021, 69쪽; 장성민,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푸리탄출판사, 2016, 518쪽.

21) 박홍서, 『미중 카르텔』, 후마니타스, 2020, 311쪽.

22) 김희교, 『짱개주의의 탄생』, 보리, 2022, 75쪽.

한국인의 중국관도 큰 변화를 보였다. 사드를 배치한 후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2021년 5월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호감을 나타낸 사람은 26.4%로써 미국 호감도인 57.3%에 비할 바가 아님은 물론 일본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인 28.8%와 28.6%보다도 낮았다.²³⁾ 사드 배치 후 대중국 호감도가 한국인이 줄곧 정서적으로 적대시해온 일본보다도 더 낮아졌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해주었다. 사드 배치 전에 한국의 대중국 반감이 장기적으로 40~50% 사이에 머물렀는데 2017년에 60%를 넘어선 후 줄곧 높아져 2021년에는 77%까지 치솟았다.²⁴⁾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중대한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였다. 장성민은 사드 배치 문제가 한국인들이 중국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중국위협론”이 폭증된 계기로 파악하였다.²⁵⁾

수교 당시 중한 양국은 양국 관계를 우호 협력관계로 설정하였고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시켰지만,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사드 배치 등 이슈는 양국 관계의 명목과 실체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은 아주 복잡하여 중국이 자체의 거대한 정치·경제 군사 역량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을 걱정함과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²⁶⁾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7%에 도달하였지만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는 종국적으로 “적과 동침”²⁷⁾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갈파하는 학자도 나타났다.

23) 김희교, 『장개주의의 탄생』, 보리, 2022, 5쪽.

24) 정덕구, 『극중지계1』, 김영사, 2021, 60쪽.

25) 장성민,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푸리탄출판사, 2016, 518쪽.

26) 이지예, 『미중 전쟁 앞으로의 세계』, 가나, 2021, 281~282쪽.

27) 정덕구,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 중앙 books, 2011, 26쪽.

2. 한국 지식 엘리트들의 네 가지 중국관

전술한 바와 같이 2010년에는 상징적 의의가 뚜렷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동북아 국세의 격렬한 요동 속에서 현대 한국의 대외관은 극렬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자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2대 핵심 이익과 이데올로기 등 요소의 상호 작용하에서 한국 엘리트 계층은 네 가지 중국관을 형성하였다.

첫째 중국관은 중국위협론이다. 중국위협론은 1990년대 초 미국과 일본에서 제기되었고, 난사군도 분쟁과 대만해협 위기를 거치면서 아시아 국가들로 확산하였다.²⁸⁾ 중국 학계는 평화 굴기론으로 중국위협론에 대응하였다. 1990년대 중엽 이후 중국 기회론이 중국위협론을 대체하였다. 중국이 산업과 국방 등 여러 영역에서 세계기록을 부단히 쇄신함에 따라 서방세계의 대중국 인식도 상응하게 바뀌었는데 중국 붕괴론은 중국위협론으로 바뀌었고,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차 변했다. 중국은 경제지수에서 부단히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에 대한 서방세계의 시각은 시시각각으로 변했고, 중국 '붕괴론'에서 중국 '위협론'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 '제일론'으로 바뀌었다.²⁹⁾ 2010년 후 한국학자들도 적지 않은 중국위협론의 저서들을 출간하였다. 한국에서는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경계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었다.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면 조선시대의 조공체제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한국 사회에서 확산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질서 형성을 경계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한국의 중국위협론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굴기를 현행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면서 신흥대국과 기존 패권국가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 한국학계의 중국위협론 중에서의 주류관점이기도 하다. 둘째는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나라이자 북한을 후원하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굴기는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관점이다. 셋째는 역사 경

28)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나남, 2009, 191쪽.

29) 전병서, 『중국의 대전환, 한국의 대기회』, 참돌, 2015, 227쪽.

협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주도의 조공체제가 다시 등장할 것을 우려하는 관점이다.

조영남은 중화 질서 부활론을 비판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중화 질서를 기꺼이 접수할 것이라는 관점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³⁰⁾ 중국위협론 관점은 한국의 안보 영역과 역사학 영역 학자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많다. 최근의 중국위협론자들의 저서로는 이춘근의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안세영의 『위대한 중국은 없다』, 한청훤의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이철의 『중국의 선택』과 『이미 시작된 전쟁』 등이 있다. 안세영은 중국의 유전인자에는 맹목적인 팽창의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부류의 저서들은 대체로 역사적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조공체제와 현대 국제관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위협론자들은 역사적 경험을 현대 국제관계에 적용하면서 한국이 다시 과거 종속국의 지위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둘째 중국관은 중국 붕괴론이다.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중국 붕괴론이 있는데 일부는 근거 없이 중국을 무시하는 견해이기도 하고, 일부는 막연한 소망을 반영하는 것도 있다. 붕괴론은 아래의 네 가지로 재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의 부상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은 미국 국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숭배심과 미국에 대한 공포심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는 자본주의 요소, 즉 시장제도와 개인적 소유를 도입한 ‘독재국가’는 오래갈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예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일부는 중국이 이미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불완전한 장래에 민주주의국가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의 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보고 있다. 서방의 근대화론은 경제의 고속 성장과 정치 민주화 간에

30)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나남, 2009, 272쪽.

는 친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을 이론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갈 점은 근대화 발전 단계는 타문화와 타문화 속 사람들의 위계질서를 재는 척도로 한국인들에게 내면화되었다는 점이다.³¹⁾ 한국의 주류경제학자들의 중국경제에 대한 견해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와 현대화 논리를 버무린 산물이다. 김병연은 중국의 경제 고속 성장은 결국 멈출 것이고 중국은 결국 미국을 이기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 핵심 이유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국유기업이 공산당 권력과 유착되어 있어 개혁·혁신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³²⁾

2012년 후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목표를 7%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중국경제 위기론이 서방에서 떠들썩해지는 계기로 되었고 한국에서도 맹목적으로 위기론에 편승하면서 중국경제 위기론이 물밀듯이 나왔다.³³⁾ 소위 중국이 중·미 무역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중국이 성공할 리 없다'라는 중국 붕괴론의 새로운 버전이다.³⁴⁾ 셋째 관점은 중국이 엄청난 사회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며, 결국은 현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네 번째 관점은 중국의 역사적 순환론에 따라 '공산당 왕조'의 붕괴를 예견하는 주장이다. 붕괴론자들은 중국에 대해 가장 무지한 부류로서 미국 숭배자들과 미국 유학파들 속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붕괴론의 저서도 적지 않은데 한우덕의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 김기수의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중국경제의 추락에 대비하라』와 『중국경제의 추락』, 이승우의 『중국몽의 추락』 등이 있다. 붕괴론은 다소 황당무계하다는 인상을 주는바 상세히 논할 가치가 별반 없다.

한국의 지식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식체계에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기에 미국 지식체계를 넘어서는 관점을 만나기가 어렵다. 한국학계가 기본 상에서 비판 없이 미국의 근대화론, 중국 붕괴론과 중국위협론과 같은 중국관을 수용하였기에 한국학계의 중국위협론 중국 위기(붕괴)론은 모두 엄중한

31) 정용욱·홍석률 외, 『한국 현대사 연구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2, 307쪽.

32) 김희교, 『짚개주의의 탄생』, 보리, 2022, 172쪽.

33) 전병서, 『중국의 대전환, 한국의 대기회』, 참돌, 2015, 67쪽.

34) 김희교, 『짚개주의의 탄생』, 보리, 2022, 169쪽.

이데올로기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⁵⁾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대중국 인식은 분열, 대립, 심지어는 상호 대치 내지는 논쟁하고 있는데 중국 붕괴론과 중국위협론은 두 가지 공존 불가능한 극단적인 논리 위에 병립하고 있다.

셋째 중국관은 중국 기회론이다. 중국 기회론의 특징은 중국의 굴기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인식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 기회론은 중국이 미래에도 경제의 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려 경제총량이 미국을 추월하는 초급 강대국으로 될 것으로 본다. 그들은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역사 문화도 상당히 유사하기에 한국의 우세를 발휘하기만 하면 중국의 굴기는 한국발전의 기회라고 본다. 중국 기회론은 경제 방면의 관료와 학자, 중국주재 업체의 지도자 중에 많다. 중국 기회론은 중국의 세계 강대국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중국 기회론에 관한 문장으로는 김동하의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병서의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한국의 신국부론, 답은 중국에 있다』와 『중국의 대전변, 한국의 대기회』 등이다. 수년 전 중국경제성장률 목표치의 하향 조정과 중·미갈등의 심화로 중국 기회론을 주장하는 저작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네 번째 중국관은 도전과 기회 병존론이다. 도전과 기회 병존론은 중국의 굴기가 동아시아 지정학 구도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지만 중국의 경제발전이 한국의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중국·북한을 한 쌍으로, 한국·미국·일본을 다른 쌍으로 한 충돌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통일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면 모순과 마찰을 완화할 수 있을뿐더러 중국의 경제 발전에 힘입어 한국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조영남은 중국의 굴기는 중국 자신의 경제발전이 기반한 것이기에 미국도 중국의 경제발전을 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도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35) 이희욱·백승욱,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책과함께, 2021, 10쪽.

보았기에 아시아 각국도 중국경제의 굴기를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조영남은 한국은 반드시 한미동맹의 성격과 자신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하며 한미동맹의 목표를 북한의 도발 억제로 제한하고, 한국은 미·일의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군사행동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곽대중의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영남의 『용과 춤을 추자』와 『중국몽』, 이삼성의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정인의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등은 모두 대체로 도전과 기회 병존론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도전과 기회 병존론은 중국을 깊이 아는 군체로서 여론을 선도하는 위치에 처해있다.

상술한 네 가지 중국관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는 중·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역량 변화가 수반된다. 때로는 중국위협론이 떠들썩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 기회와 도전 병존론이 주목받기도 한다.

3. 한국 지식 엘리트들의 최근 대중국 인식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중국의 GDP 규모는 2014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로 되었다.³⁶⁾ 중국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제의 고속 성장과 정치안정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점은 한국학계도 인정하였다. 최근 한국학자들의 중국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사드 배치와 중·미무역전쟁 등이 지식 엘리트들에 대한 영향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안전보장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지식 계층 엘리트들은 중국의 외교 동향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적지 않은 한국학자들이 중국 외교를 ‘늑대 외교’라고 명명하였다. <한겨레신문>의 박민희 논설위원은 중국의 늑

36) 이지예, 『미중 전쟁 앞으로의 세계』, 가나, 2021, 104쪽.

대 외교와 경제 군사 역량을 뺏내는 행위가 주변 국가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였다.³⁷⁾ 그러나 상술한 관점과 반대로 ‘늑대 외교’를 공세적이 아니라 수세적 외교로 보는 학자도 있다. 중국이 후진타오식의 판다 외교에서 시진핑식의 ‘전랑(늑대) 외교’로 돌아서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미국의 대중국 봉쇄 배척정책으로 보았다.³⁸⁾ 이 밖에 중국을 한반도에서 미국의 선제타격 전쟁 발동을 억제하는 가장 관건이 된 역량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³⁹⁾ 또 어떤 학자는 시진핑 총서기의 ‘신시대’가 ‘도광양회’ 전략의 정식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⁰⁾ 비교적 객관적 입장과 중립적 관점을 가진 학자는 오히려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지만 주요 관심과 활동 영역은 여전히 자국과 아시아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세계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 국제평화의 유지 등 지구적 공공재를 공급하는 문제에서 중국은 여전히 제한된 역할과 책임만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⁴¹⁾ 문정인은 2021년에 중국 인민 대부분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소강사회 건설, 그리고 2049년에 중국을 선진국 대열에 편입시키겠다는 중국몽을 미국과 같은 세계 제패 전략이 아니라고 보았다.⁴²⁾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한국의 핵심 이익은 주변 대국 경쟁의 영향을 몹시 심하게 받았으며 중·미갈등도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심 초점으로 되었다.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 개념을 제기하면서 중·미경제가 하나로 융합되었기에 중·미 간에 패권 경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부 한국학자도 중·미경제가 한 덩어리로 영커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학자들은 이에 비추어 중·미 무역전쟁의 핵심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반도체는 제4차 과학기술 혁명의 핵심 변수로서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부문도 반도체

37) 박민희, 『중국 딜레마』, 한겨레출판, 2021, 42쪽.

38) 김희교, 『짱개주의의 탄생』, 보리, 2022, 137, 139쪽.

39) 이삼성,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한길사, 2018, 77, 111쪽; 김희교, 『짱개주의의 탄생』, 보리, 2022, 595쪽.

40) 이성현,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책들의정원, 2019, 81쪽.

41) 조영남, 『용과 춤을 추자』, 민음사, 2012, 95쪽.

42)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청림출판, 2021, 148쪽.

체와 5G 기술이기 때문에 화웨이 문제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미래기술의 표준화 문제이고, 중국이 이미 5G 표준의 제정에서 더욱 큰 발언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국 과학기술의 신속한 굴기에 기반하여 정유신은 단정적으로 ‘중국이 이긴다’라고 선언했다.⁴³⁾ 이병한은 중국이 우주산업에서도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파악했다.⁴⁴⁾

경제면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한국 엘리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장성민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경제력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경제 패권 전략으로 보면서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봉쇄전략에 중국은 경제력을 이용해 미국의 봉쇄 작전을 뚫고 나가서 역으로 미국을 고립시키는 중국 판 미국 배제 전략으로 인정하였다.⁴⁵⁾ 이희옥은 아시아 인프라 은행·일대일로 등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체계에 대항하는 행위로 보았다.⁴⁶⁾ 그와 반대로 박홍서는 일대일로의 초점은 정치보다는 경제에 맞춰져 있으며 일대일로는 미국에 대한 공세 전략이라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방어전략이라고 인정하였다.⁴⁷⁾ 이지예는 일대일로는 전 세계 무역과 GDP의 3분의 1, 세계 인구의 60%를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로서 무역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나라들이 중국의 손을 잡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인정하였다.⁴⁸⁾

문정인의 일대일로에 관한 서술이 가장 상세하다. 문정인은 일대일로에서 세력권 확장 의도도 보이지만 동쪽에서 오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서쪽에 새로운 생존 공간을 개척할 필요가 있고, 중국 전체 수출입의 80%를 차지하는 해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해양 실크로드 구축이 필요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기에 건설·토건 업계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일대일로가 필요했었다는 것이

43) 김희교, 『짱깨주의의 탄생』, 보리, 2022, 23쪽.

44) 이병한, 『테크노 차이나』, 라이스메이커, 2022, 499쪽.

45) 장성민,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퓨리탄출판사, 2016, 253쪽.

46) 이희옥·강수정, 『전환기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재구성』, 선인, 2020, 16쪽.

47) 박홍서, 『미중카르텔』, 후마니타스, 2020, 239쪽.

48) 이지예, 『미중 전쟁 앞으로의 세계』, 가나, 2021, 112, 115쪽.

다. 이처럼 문정인은 일대일로 구상이 최근 숱한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미국의 견제와 일대일로 자체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도 일대일로에 대한 조절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중국의 지정학·지경학적 생존 공간으로 작동하는 일대일로를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전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⁴⁹⁾ 수많은 학자의 분석 평가 중에서 심도와 객관성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김희교의 『짱깨주의의 탄생』이다. 김희교는 중국의 일대일로는 개발주의의 확장이거나 제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마련과 함께 미국의 봉쇄 정책에 대항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았다.⁵⁰⁾

중국의 정치 체제도 적지 않은 한국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조영남은 『중국의 엘리트정치』⁵¹⁾에서 중국이 일인 지도 체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전히 집단체제라고 인정하였다. 한국의 다수는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국가라고 보지만 김희교는 ‘중국이 독재국가라는 프레임은 서구적 민주주의를 표준화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하였다.⁵²⁾ 이희옥은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를 혁명 30년, 사회주의 건설 30년, 개혁개방 30년과 신시대 10년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과 효율성을 우선하던 정책을 약화하고, 사회주의적 재분배와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면서 중국몽의 실현여부는 아래의 과제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⁵³⁾ 첫째는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부유의 사회 주의성을 회복하고, 둘째는 신형 국제질서를 수립하며, 셋째 중국식 세계화의 가능성 모색하는 것이다.⁵⁴⁾

한국학자들은 국영기업 개혁,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와 부채 문제를 중국이 당면한 최대 난제로 꼽았다.⁵⁵⁾ 2012년에 중국의 국내 총생산량과 가계

49)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청림출판, 2021, 205~207쪽.

50) 김희교, 『짱깨주의의 탄생』, 보리, 2022, 299쪽.

51) 조영남, 『중국의 엘리트정치』, 민음사, 2019.

52) 김희교, 『짱깨주의의 탄생』, 보리, 2022, 145쪽.

53) 이희옥·백승욱,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책과함께, 2021, 38, 116쪽.

54) 이희옥·백승욱,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책과함께, 2021, 23~24쪽.

55) 임명묵,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에이지21, 2018, 134쪽.

채무의 비율은 28%였지만 2017년에는 48%로 폭증하였고, 동 시기 기업의 부채비율도 40%까지 치솟았다. 현재 중국은 3대 위협에 직면하였는데 각기 부채와 부동산 버블, 좀비기업이라고 보았다.⁵⁶⁾ 2018년 11월 노무라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팅(陆挺)은 심지어 중국의 363개 도시에서 주택의 5분의 1수준인 5천만 채가 빈집이라고 밝혔다.⁵⁷⁾

<한겨레신문>의 기자 박민희의 표현이 어찌면 한국 지식 엘리트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지도 모른다. “어떠한 나라도 거대하고 복잡한 중국을 외부의 압력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중국은 내부에서 스스로 개선하고 변화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시민들은 중국의 현실을 진지하게 보고, 협력하되 할 말을 하고, 한국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밖에 없다.”⁵⁸⁾

4. 한국은 어찌해야 하는가?

근현대 한국의 중국관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어떻게 변화든지 대중국 인식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여전히 핵심 이익이다. 현재 한국의 핵심 이익은 두 가지 즉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이다. 주변 강대국 국력의 변화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이 있다. 한국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관건이 되는 외부 요소는 북핵 문제, 중국의 굴기와 미국 국력의 변화이다. 만약 중국과 미국을 논외로 한다면 한국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은 상상하기 어렵다.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북한의 핵 무력을 날로 강화해 그로부터 한국의 안전보장이 오히려 위협받게 되는 악성 순환이 벌어지게 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를 받

56) 박종훈, 『2020 부의 지각변동』, 21세기북스, 2019, 118쪽.

57) 박종훈, 『2020 부의 지각변동』, 21세기북스, 2019, 125쪽.

58) 박민희, 『중국 딜레마』, 한겨레출판, 2021, 15쪽.

전시시기 위하여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무역 교류를 강화하기를 희망하였다. 2018년에 중·미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한국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중·미경쟁과 한국의 선택에 관한 화두가 급증하였다. 한국은 중·미 간에서 부단히 손익계산을 하는데 중국·미국·북한 3자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에서 한국의 엘리트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 관점은 보수진영의 ‘한미동맹 중심론’인데 전술한 중국위협론이 그들의 이론 근거이다. 미국은 외부의 적을 악마화하는 오래된 역사 전통이 있는데, 중국이 악마화의 대상이 되었으며 미국의 중국 악마화는 일정한 정도에서 예기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한국의 보수들은 한·중 양국은 사회 정치 체제가 부동하여 넘을 수 없는 골이 있으며 양국이 비록 교류 협력은 가능할지라도 진정한 맹우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일본과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 민주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기에 진정한 동맹국으로 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중국의 굴기는 불가피하게 미국과의 충돌을 불러일으키며 한국은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말려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에 중국의 굴기는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보수들은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한국은 반드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고 사드 배치는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춘근은 만약 중미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 한국은 미국 편에 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⁵⁹⁾ 김기수와 이성현은 신냉전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면서, 한국이 미국 쪽에 설 것을 주장한다. 안세영과 윤덕민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패권전쟁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반드시 이기며, 미국 편에 설 것을 주장한다.⁶⁰⁾

둘째 관점은 중미 병중론인데 중국 기회와 도전 병존론이 그들의 이론적 근거이다. 안전보장은 미국에 따르고 경제발전은 중국에 따르는 ‘안미경중’ 노선도 전형적인 중·미병중론 중의 하나이다.⁶¹⁾ 병중론은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에 구애받지 말고 실용주의 각도에서 중국의 굴기를 바라볼 것을 요구한

59) 이춘근,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김앤김북스, 2016, 27쪽.

60) 김희교, 『짚개주의의 탄생』, 보리, 2022, 237쪽.

61)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청림출판, 2021, 291쪽.

다. 한·중 양국은 비록 정치 체제가 다르지만, 국제사무에서 여전히 상호협력으로 윈윈할 수 있기에 중국의 굴기가 비록 한국에 대해 일정한 위협이 있더라도 기회가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본다.

동시에 중·미병중론은 중국의 협력과 지지가 없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결정하게 견지하기에 한·중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병중론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동등하게 중요하기에 안보방면에서는 오히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할 것을 강렬히 주장하지만, 북한의 군사 공세를 억제하는 데 전념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군사연맹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병중론자들은 한국이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에 가입하지 말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도 중국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협력과 지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정부의 ‘균형 외교’,⁶²⁾ 정재호의 ‘전략 모호성’,⁶³⁾ 배기찬의 ‘돌고래 생존전략’⁶⁴⁾ 등이 모두 현상유지전략에 속한다. 현상유지 전략은 한미동맹의 유지를 강조하지만, 동맹의 목적은 북한의 군사 위협 억제에 국한하고 동맹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미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면 현상 유지의 중·미병중전략은 운신의 폭이 아주 좁다.

셋째 관점은 자강을 기초로 한 다자안보 체제의 건립론이다. 한국의 보수 진영은 한미동맹 중심론을 힘껏 주장하고 미국도 한국의 안전보장을 장담하지만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 한국 본국의 전문가는 거의 없다.⁶⁵⁾ 한국학자들은 한·미동맹은 비단 한국이 중·미 충돌에서 입은 손실을 보완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격도 저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많은 한국학자가 전적으로 미국에 따르는 전략은 자국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⁶⁶⁾ 한국의 미국택일은 바로 이웃한 강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62) 노무현·박근혜 정부는 한국이 중·미 사이에서 동북아의 균형자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3)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64) 배기찬, 『코리아 생존전략』, 위즈덤하우스, 2017.

65)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청림출판, 2021, 278쪽.

악화와 응징 위협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수는 중국을 목표로 하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반대하기에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은 한국에게 실현 가능한 현실 방안이 될 수 없다. 한국학자들은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편승하여 최대 무역 상대국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그렇다고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다.⁶⁷⁾

한국학자들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억제전략의 선봉이 되지 말 것을 주장하지만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원인 때문에 한국은 완전한 친중국전략으로 돌아설 수도 없다. 우선 중국과의 경제통합이 열린 지역주의와 동시에 추진된다면 한국에게 득이 되지만, 만약 미국·일본과의 경제 관계를 차단하고 완전히 중국에 올인한다면 한국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본다.⁶⁸⁾

다음으로 친중국전략은 완전히 미국의 전략 배치에 좌우되고 미국은 동북아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그다음으로 한국의 보수진영이 그들의 정치위력을 이용한 한·미동맹 신성화도 친중국전략을 저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편견이 있으며 한·중 양국은 국가 정체성과 기본가치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완전한 공생이 어렵다고 인정한다. 한국은 내부의 정치 민주화에 너무 빨리 촉매를 든 나머지 보편가치의 극대화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였다.⁶⁹⁾ 자강론은 중국 추종론과 미국 운명론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노선이 모두 취할 바가 못 된다고 인정한다.⁷⁰⁾ 정덕구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칩4 동맹’과 인태전략 앞에서 주저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무조건 중국과 잘 보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경제적 이익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66) 이지예, 『미중 전쟁 앞으로의 세계』, 가나, 2021, 269쪽.

67) 박홍서, 『미중 카르텔』, 후마니타스, 2020, 304쪽.

68)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서울:청림출판, 2021, 283쪽.

69) 김희교, 『짚개주의의 탄생』, 보리, 2022, 463쪽.

70) 정덕구, 『극중지계1』, 김영사, 2021, 48쪽.

공존의 틀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인정하였다.⁷¹⁾ 자강론은 중국 위협론, 위협론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중국의 전략 가치를 무시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중국 기회론, 부상론 등 중국을 핑크빛으로만 보아서 편승 전략에 함몰되어 중국의 전략적 도전을 놓치는 것도 반대한다.⁷²⁾ 그 때문에 문정인은 한국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국가와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과 통합의 새 지역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⁷³⁾

5. 맺음말

수교 후 30여 년간의 한국 지식 엘리트들의 중국관의 변화계적은 중국관이 부동한 결정적 요소의 영향 아래에서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쳤음을 보여 준다. 수교 초기 한국의 다수 엘리트는 다소 ‘성공자’의 낙오자에 대한 동정 심리가 있었고, 한·중 양국의 종합국력 격차의 변화는 이 시기 인식변화의 결정적인 요소였다. 국력 격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한국 엘리트들의 중국관은 점차 중국 기회론 심지어 중국위협론으로 변화하였다. 2010년 후 안전보장과 경제이익은 중국관의 결정적 요소가 되었고 초기에 그다지 주목받지 않던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이 시기에보다 뚜렷해졌으며 한국 측은 중국이 북한을 편든다고 원망하면서 박근혜 정부시기에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한·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하였다. 사드 배치가 한·중 양국 관계의 중대한 분수령이 된 데 이어 미국의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전쟁 도발과 북핵 위기의 장기화는 더욱 한국 엘리트들의 대외관에 극렬한 변화가 발생하게 하였고 중미경쟁과 한국의 선택 화두도 따라서 부쩍 많아졌다. 한국이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한국 엘리트들은 한·미동맹 중심

71) 정덕구, 『극중지계1』, 김영사, 2021, 57쪽.

72) 정덕구, 『극중지계2』, 김영사, 2021, 409쪽.

73)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청림출판, 2021, 301쪽.

론, 중·미병중론과 자강 기초 상에서의 다자 안보체제의 구축론 등 세 가지 주장을 제기하였다. 한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든 모두 한국의 최종 운명에 직접적이고 관건이 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대중,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시대정신, 2012.
- 김기수, 『중국경제의 추락에 대비하라』, 살림출판사, 2012.
- 김용욱,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 통나무, 2018.
- 김충식, 『5공 남산의 부장들2』, 동아일보사, 2022.
- 김희교, 『짚개주의의 탄생』, 보리, 2022.
-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청림출판, 2021.
- 박경귀, 『중국이 감추고 싶은 비밀 35가지』, 가나북스, 2015.
- 박민희, 『중국 딜레마』, 한겨레출판, 2021.
- 박중훈, 『2020 부의 지각변동』, 21세기북스, 2019.
- 박홍서, 『미중 카르텔』, 후머니타스, 2020.
- 배기찬, 『코리아 생존전략』, 위즈덤하우스, 2017.
- 성균중국연구소, 『한중수교 25년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 신봉수, 『현대와 중국』, 나무발전소, 2021.
- 심용환, 『리더의 상상력』, 세계절, 2022.
- 요시미 아, 『헤이세이역사 강의』, 동방출판중심, 2021.
- 왕효령, 『한국인의 중국관』,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4.
- 유광중, 『중국이 두렵지 않은가』, 책발, 2014.
- 유장근, 『현대중국의 중화제국 만들기』, 푸른역사, 2014.
- 이병한, 『테크노 차이나』, 라이스메이커, 2022.
- 이삼성,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한길사, 2018.
- 이성현,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중국편』, 책들의정원, 2019.
- 이지예, 『미중 전쟁 앞으로의 세계』, 가나, 2021.
- 이 철, 『중국의 선택』, 처음북스, 2021.
- 이춘근,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김앤김북스, 2016.
- 이희욱·강수정 편, 『전환기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재구성』, 선인, 2020.
- 이희욱·백승욱,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책과함께, 2021.
- 임명목,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에이지21, 2018.
- 장성민,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퓨리탄출판사, 2016.
- 전병서, 『중국의 대전환, 한국의 대기회』, 참돌, 2015.
- 정덕구,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 중앙books, 2011.
- 정덕구, 『극중지계』1-2, 김영사, 2021.
- 정용욱 홍석률 외, 『한국 현대사 연구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2.
- 정중호, 『한중 수교 30년, 평가와 전망』, 21세기북스, 2022.
-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나남, 2009.
- _____, 『용과 춤을 추자』, 민음사, 2012.
- _____, 『중국의 꿈』, 민음사, 2013.

- _____,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3, 민음사, 2016.
- _____, 『중국의 엘리트정치』, 민음사, 2019.
- _____, 『중국의 통치체제』 1-2, 21세복스, 2019.
- 최병일,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편』, 책들의정원, 2019.
- 한청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사이드웨이, 2021.

A Study on the Evolution of Modern Korean Intellectual Elites' Views on China

Jin Guangxi* · Wang Sijia**

The views of Korean intellectual elites on China change with the are changing with major factors, such as the comparison of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North Korea factor, the gam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protracted Korean nuclear crisis. Korean intellectual elites put forward four views on China, such as China threat theory, China collapse theory, China opportunity theory and China opportunity and challenge coexistence theory. With the change of peninsula situation, their four views on China also show a trend of ebb and flow. On the question of where Korea should go, Korean elites have formed three propositions: Korea-US alliance-centered theory, China-US equal emphasis theory and multi-party security system theory based on self-improvement.

Key words: Korean intellectual elite, View of China, Core interests, Great power game

논문투고일: 2024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8일 ||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12일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Yanbian University

** Master' degree student, Department of History, Yanbian University